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지원심의평

연극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1.25(수) 10:00~19: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15(수) 10:00~20:00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구태환, 백하룡, 소홍삼, 송훈상, 심재민, 안치운, 이봉규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올해의 신작 심의는 1차 서류심의로 출발해서 시연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작품 선정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다. 심의위원은 서류 심의를 위하여 지원한 모든 희곡을 읽고 토론했다. 신작 희곡들이 작가의 제안이라면, 심의와 지원은 그 내포를 읽어내고, 창작에 이르게 하는 부싷돌과 같다. 창작산실은 창작을 위한 산실 노릇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심의는 연극을 위한 희곡의 새로운 글쓰기, 나아가 새로운 연극의 산실로서의 가능성을 주목했다.

지원한 작품들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젊은 작가들의 도발적인 글쓰기이고, 두 번째는 이미 공연과 희곡을 통하여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와 극단의 입장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지속적인 글쓰기이고, 세 번째는 한국 희곡, 한국 연극 분야에서 오랫동안 희곡을 쓰고 연출했던 희곡작가와 연출가의 견해를 입증하는 글쓰기이다.

산실은 새로움을 낳는 공간이면서 숨겨진, 내밀한 공간이다. 산실은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자취를 호출하는 기회와 귀속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작가와 극단의 이름으로 제출된 대본을 읽으면서 그 비밀의 공간을 듣고, 들여다보고, 그려보았다. 작품의 깊이는 인쇄된 대본의 두께를 훨씬 뛰어넘었다. 오늘날 시대의 풍경을 풍자하거나, 우리가 지닌 의식을 역습하는 작품들이 있었고, 과거의 역사를 만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연대감을 지닌 작품들도 있었고, 저 스스로 속삭이면서 깊은 심연의, 아늑한 길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있었다. 달리 말하면, 시대의 자화상을 풍요의 정반대 자리에서 담은 작품들도 있었고,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제의 경계를 뛰어넘는 작품도 있었고, 산업화 시대에 이은 민주화 시대의 불안 심리를 연극적 전언들로 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다. 신작이지만 독회를 거친 작품들도 있었고, 작가와 연출가의 명성에 의지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위한 희곡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문학적인 필요가 있겠다. 관객의 미래, 연극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의 희곡들은 지극히 평범하다. 문제의식과 전개과정에서 연극분야의 전문가들과 동시대 연극인들의 재확인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들은 희곡이란 글쓰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무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첨예한 작품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낯선 언어이지만 연극의 언어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공연을 낳을 수 있는 작품들을 1차로 선택했다.

79편의 지원신청 작품 중 25개 작품이 1차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들은 프레젠테이션 대상으로 고른 작품들이 희곡 속 허구의 모습을 통하여 실제의 삶을 더 두껍고 더 깊게 드러낼 가능성을 지닌 작품들이라고 판단했다. 1차로 선정된 작품들은 극적 상상력이 글자나 자구에 한정되지 않았고, 허구와 실제가 시체를 혼용하기도 했다. 감회를 에둘러 보여주는 글쓰기보다는 삶의 비루함과 숨겨진 현실의 폭력을 드러내면서 연극의 지위, 삶의 존엄을 말하려는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진열장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지원한 극단의 행정 서류-작품 제작에 관한-를 검토했고, 배우와 무대 장치 등 공연준비에 관한 규모와 일정, 이에 따르는 예산 배분의 적절성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는 예술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극단의 예산 집행이 공공지원 사업의 윤리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2차 심의는 1차 서류 심의를 통과한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극단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1개 작품이 2차 심의를 앞두고 포기의사를 밝혔다.) 2차 심의는 무엇보다도 이들 작품이 이 사업의 목표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면서, 그에 따라서 결과물인 공연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지, 작가와 극단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숙고하고 판단하는 자리였다.

심의위원들의 결정은 긴 토론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 심의위원들이 지닌 미적 가치는 달랐고, 이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각자 해석이 다양했던 터라, 실연 심의 작품을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지원은 새로운 연극언어를 창출하려는 극단과 작가들에게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이 사업의 2차 심의 결정은 기존의 현상과 크게 비슷하고 동시에 조금 다르다. 비슷한 점은 젊은 극단, 연출가, 극작가의 새로운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에 있고, 다른 점은 긴 세월동안 극작과 연출 작업을 한 이른바 중견 작가들을 선정하는 결과에 있다. 이는 심의위원들의 각기 다른 미적 취향과 판단, 오늘날 사회에서 연극의 기능을 읽는 다양한 눈, 이 사업의 취지를 해석하는 너른 스펙트럼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심의과정이 연극을 창작하는 작가, 연출가들의 품에 비하여 수고의 양태가 적은 것은 분명하지만, 심의와 지원이 지닌 숙고가 연극 창작산실이라는 창작 정신에 우군처럼 여겨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심의위원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연극 작가들과 함께 연극의 가능성이 커지고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정 지원금을 안고 준비될 14개 작품의 최종 실연심의에 있다. 마지막 실연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판박이와 같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훌륭한 연극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참예한 시도들이 창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1. 23(월)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 14(월)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박재홍, 안애순, 오문자, 이경옥, 이창기, 조성주

2017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1차 서류심사에는 총 56건의 무용작품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올 해에는 작품계획서와 함께 이미지 스케치를 필수 제출 자료로 규정하였는데, 심의에서는 이보다 단체(안무자)의 대표작을 짧은 영상으로 제출하는 것이 작품성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올 해 창작산실 사업의 또 다른 변화는 일반분야와 어린이 청소년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받는 것이었는데, 전문 단체가 전무한 무용분야에 당분간 지원 사례가 적을 것이나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라는 것에는 많은 심의위원이 동의하였다.

심의 방법은 신청 사업별 개별 검토 후 7인의 종합 토론을 거쳐 개별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총점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총 25개 사업을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에 앞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창작에 있어서 장르의 삼분법(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이 무의미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대적으로 창작에 열악한 장르를 배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논의되었고, 세대 간의 고른 안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차 심의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주제의 참신성과 실현 가능성, 단체의 지난 활동 경력과 제작진의 전문성 등이 우선 되었고, 과거 본 사업에 선정되었던 단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검토되었고, 동점 발생 시에는 지역, 신규, 신작 우선의 원칙을 따랐다.

2017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지원한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대무용 장르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국무용, 발레 순으로 지원되었는데, 작품계획서에 밝힌 내용이 추상적 시문에 그치는 등 미흡한 경우가 많아 경쟁력에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했다. 1차 심의에서는 서류만으로 작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계획서에 보다 명료한 전달력을 갖추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무용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기 바라며, 한국 공연예술계에 우수한 무용작품이 발표되고 보존되기를 바란다.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2차 심의에서는 4월에 진행 될 3차 실연심사(쇼케이스)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심의에는 지난 1차 심의에서 선정된 25개 단체가 심사 대상이 되었는데, 중대극장 작품 14개와 소극장 작품 11개이며, 이 중 일반관객 대상이 24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이 1개이다.

심의는 각 단체별 10분 pt 발표와 5분 심의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심의위원 종합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한 점수를 취합하여 순위와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로는 16개 작품(대극장 9, 소극장 7 작품)을 실연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작품의 순위와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심의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주제의 참신성과 실현 가능성, 단체의 지난 활동 경력과 제작진의 전문성 등이 우선 되었고, 과거 본 사업에 선정되었던 단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검토되었다. 특히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실연심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가능성, 주제 탐구의 깊이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25개 작품 가운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확고한 주제의식, 실연에 대한 계획이 명료한 작품들이 다수 기대를 얻었으나 몇몇 작품의 경우 표현 기법과 제작진의 역량이 우수한데 반해 주제의식이나 논리가 명확히 수립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4년여의 준비를 통해 작품이 준비된 만큼 완성을 향한 진행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서류가 미흡했지만 프리젠테이션으로 충분히 만회한 경우 1차 심의 결과와 다른 순위변동을 낳으며 인터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최종 선정 여부를 떠나 일련의 심의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창작 아이디어가 수면위로 꺼내지고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은 본 사업이 갖는 창작 독려와 마중물 역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월 말로 예정된 실연심사까지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선정된 무용가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1. 24(화)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 10(금)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진이, 박환영, 반무섭, 이견미, 이주영, 최시열(유준오), 홍승광

전통예술 분야의 올해의 신작 부문에는 총 35건이 지원되었고, 1차 심의에서 16건을 선정하였다. 2차 심의에 불참한 2건을 제외한 14건 중에서 7건이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되었다. 심의 기준은 작품 수월성 40%, 제작 실현 가능성 40%, 파급 효과 20%인데 2차 심의에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올해의 신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전통 예술이 걸어온 지난 역사가 함축적으로 내재한 바탕에서 새롭게 이번 성과가 축적되길 기대했지만 이에 부응하는 작품은 찾기 힘들었다. 이번 심사에 지원된 35건 대부분 시각적인 요소를 강화하거나 복합장르에 쏠린 경향이 강했는데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음악이나 무용에서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확장한 게 아니라 유행에 편승한 듯한 작품이 늘어나는 최근 전통 예술계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제작 실현 가능성 측면의 변별력이 낮았고 수월성과 파급 효과 면에서도 평이해서, PT 심사에 참여한 14건 모두 표준 편차는 거의 없다 보니 작은 차이가 당락을 갈랐다.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작품의 장악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주로 많았다.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상투적이거나 단순한 재구성에 그친 것은 아닌지, 맥락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등 전통 예술 분야에서 쉽게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시대의식과 역사를 다룬 작품이 많았고, 장르 간의 협업이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보였다. 전통 예술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도 적지 않았으나 신작의 특성상 외연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모두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악보다는 성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많이 선정되었는데, 작품의 주제의식이 예년보다 두드러지는 경향이 반영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소설 판 _ 아버지의 노래는’는 지역성을 소재로 잘 끌어온 성실함이 돋보였고, ‘다큐멘터리와 음악으로 만나는 피리 근대 백 년사(史)’는 간과하기 쉬운 전통 생성의 과정을 잘 포착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런 장점을 잘 다듬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심의위원 일동

창작뮤지컬 분야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17. 1. 20(금) 10:00~14:00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2차 PT 및 인터뷰) 2017. 2. 9.(목) 10:00~17:00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재성, 박인선, 변희석, 정수연, 정인석, 조형준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올해의 신작 1차 심의에는 총 29편의 작품이 지원하였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대본과 음악을 읽고 들으면서 창작자들의 수많은 고민과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흔적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2차 프리젠테이션 심의에 부칠 14편의 작품을 선별하기 위한 논의는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다.

우선 철저한 준비를 마친 작품들에 비해 음악과 대본 등의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된 작품들도 눈에 띄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지원한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내려는 작품들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현실보다는 사극 등의 형식을 빌린 과거의 이야기, 동화의 비틀기나 환타지적인 이야기를 다루려는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 안에서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소재의 독창성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그리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라는 시의성이 우선적인 평가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작품의 소재는 흥미로우나 소재에 대한 설명이 위주가 되거나, 주제의식이나 형식은 독창적이지만 오히려 그 주제의식과 형식에 함몰되어 오히려 인물과 사건이 뒷전이 되는 작품들도 다수 있었다.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설명, 배경에 대한 설명, 대사와 인물의 심리의 나열에 치중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몇몇 작품들은 이후에 보완을 통해 더 좋은 작품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뮤지컬에서 이야기 못지않게 극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음악이다. 뮤지컬적 어법에 대한 기대는 중요 사건이나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심리적인 변화 등이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 넘버가 이야기와 사건, 인물과 심리를 다이내믹하고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작품들이 극을 이끌어가며 중요 사건이나 사건의 실마리, 그리고 그것들에 의한 인물의 심리 변화 등을 음악이 아닌 대사로 설명하고, 중요 사건 이후에 파생되는 사족에 가까운 내용들을 넘버로 구성해 뮤지컬 넘버의 힘과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대본과 음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가장 주요한 평가기준은 작품의 현실적인 무대화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혹여 앞서 언급한 아쉬운 부분이 혹여 있더라도 관객을 만나기 전에 계속된 고민과 수정 작업을 통한 작품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작품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이러한 고민과 심사 과정을 통해 총 14편의 작품이 2차 프리젠테이션 대상에 선정되었다. 2차 프리젠테이션에서는 10분간의 프리젠테이션과 5분간의 질의 응답을 통해 작품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플랜과, 개발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얼마만큼 명확한가를 주안점으로 두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작품을 프리젠테이션하는 심사과정 안에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설명의 반복보다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진 팀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그림일기’, ‘늦기전에’, ‘랭보’, ‘조선귀족’, ‘줄리엔폴’, ‘카라마조프’, ‘특사들’, ‘Special 5’ (이상 가나다순)의 8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림일기’는 갈 곳을 잃어버린 10대 소년소녀들의 이야기로서, 소극장을 가득 채울 동화적 환상을 구현할 무대 언어와 미장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 작품이었다. ‘늦기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신중현의 음악을 토대로 만들어갈 주크박스 뮤지컬로서, 신중현의 음악이 어떻게 뮤지컬로 재탄생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작품이었다. ‘랭보’는 시인 랭보를 중심으로 베를렌느와 들리에와의 우정과 교류를 그린 작품으로 시어를 뮤지컬 넘버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작업이었으며 특히 창작진의 수정 의지와 비전의 명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귀족’은 화족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의 귀족층을 그린 작품으로서 미스터리와 느와르, 로맨스가 잘 어우러진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같은 배경과 소재를 그린 여태의 작품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수정이 있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줄리엔폴’은 자석 심장을 가진 여자와 철의 손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뮤지컬로서 에펠탑 건설의 에피소드와 어우러져 뮤지컬다운 소재와 진행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카라마조프’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잘 압축해낸 법정 추리 드라마로서 고전 문학의 무대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특사들’은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소재에 알려진 이들 외에 또다른 숨겨진 특사가 있었다는 흥미로운 접근으로부터 시작된 작품으로, 실패한 역사로 기억되면 안된다는 주제의식이 돋보였다. ‘Special 5’는 모두가 초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초능력을 가지

지 못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발칙한 상상력과 재기발랄한 대사들로 채운 것이 호평을 받았다.

선정된 작품들이 준비과정동안 장점은 더욱 더 보강하고 단점은 보완해 4월 초에 있을 쇼케이스 공연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관객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관객들의 가슴에 기억될 작품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창작의 열정과 치열한 고민, 산고와 같은 고통과 같은 창작의 과정을 견뎌낸 모든 창작자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심의위원 일동